

“VR·AR... 오지랖 넓은 5G 세상 체험전” 도심 뒹다

이통3사, 주말 마케팅 전쟁

LG U+, 강남구 ‘일상으로 5G길’ VR·AR 등 5000여 콘텐츠 마련
오픈 2주만에 5만 여명 다녀가

SKT 전국 1300여 매장에 체험존
KT ‘ON식당’ 등 차별화 마케팅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5G 시대 실생활 변화 모습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에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5G 체험관이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5G 체험관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서울 강남구에 지난 1일 오픈한 5G 서비스 팝업스토어 ‘일상으로 5G길’이 오픈 2주일 만인 지난 13일, 누적 방문객 5만여명을 넘어섰다. 일상으로 5G길은 내달 말까지 휴일 없이 매일 오



SK텔레콤의 5GX 프리미엄 체험관.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체험관 ‘일상으로 5G길’ 입구.

LG유플러스

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방문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문객 중 LG유플러스 고객은 26%, 타사 고객이 74%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대 비중은 두 번째로 많은 22%로 20~30대가 전체 방문객의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서비스 중에서는 ‘U+VR’, ‘U+AR’를 체험할 수 있는 만화방, 혼밥식당, 클럽 등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일상으로 5G길에서는 만화방에서 가

상현실(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초고화질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U+VR 웹툰’을 즐길 수 있다. 혼밥식당에서는 손나온, 차은우 등 유명 아이돌 연예인과 1대 1로 스타데이트를 할 수 있다.

U+AR 클럽에서는 청하, AOA 등 TV속 스타들과 함께 춤을 추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2팀 석혜영 팝업스토어 PM은 “VR 400여편, AR 400여편, 공연 5,300여편 등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와 화질의 5G 콘텐츠를 생활 속에서 익숙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체험하도록 한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14일까지 3일 간 여의도 IFC몰에 ‘U+5G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5G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약 30평(100m²) 크기의 체험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단말을 이용해 5G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전에는 코엑스, 광화문, 강남역 등에도 체험존을 설치해왔다.

SK텔레콤과 KT 또한 자사 5G 콘텐츠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국 1300여개 매장에서 VR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대리점 신촌점, 다원대리점 분당서현점, PS&M 을지로점, PS&M 웨스턴동점, 가로수 직영샵 본점 등 5개 매장에서 증강현실(AR) 기기 제조사 매직리프의 AR글래스 ‘매직리프 윈’을 체험할 수 있다. 매직리프 윈을 착용하면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앵그리버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의 3D 그림 그리기, 3D 도미노 게임 등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KT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KT 5G 체험관’을 열었다. 특히 방탈출게임 형태로 구성된 ‘5G 미션룸’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2030세대 차별화 마케팅으로 서울 대학로와 홍대 등에서 운영해 호응을 받은 ‘ON식당’을 5G 체험존으로 업그레이드 해 ‘KT 5G ON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5G ON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삼성전자, 美 특허 5만건 돌파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5만개를 돌파했다. 13년간 특허 확보에 노력해온 결과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미국 특허를 5만804건 보유했다. 지난해에만 6062건을 새로 등록하면서다. 삼성전자는 13년간 미국에서 꾸준히 IBM에 이은 두번째 특허 출원량을 자랑하면서 5만건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도 특허를 12만8700건 보유했다. 전년비 7.9% 늘어난 숫자다. 이 중 미국 특허 비중은 39.5%에 해당한다. 이어 유럽(2만5669건), 한국(2만3203건), 중국(1만1709건), 일본(7170건) 등에서 특허를 많이 냈다.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 모습. /삼성전자

특히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반도체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보호뿐 아니라 경쟁사 견제 등 사업적 의미도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에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 다며, 구글과 노키아 등과 ‘크로스 라이선스’ 등 특허 보호망도 확보 중으로 전해졌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중, LNG선 또 수주... 2주새 5척 계약

그리스서 17만4000m³급 1척 따내
올 총 22척, 1조8000억 규모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이 최근 2주간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비롯한 선박 5척 계약에 잇달아 성공하며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그리스 선사로부터 17만4000m³급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공기순환시스템인 ‘Hi-ALS’가 탑재됐다. 이는 선체 하부에 공기를 분사해 마찰저항을 줄여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노르웨이 크누센사에 인도한 LNG운반선 /현대중공업

운항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Hi-ALS’의 실증을 마치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선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말 일본 선사로부터 LNG선 1척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선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1척, 그리스 선사로부터 15만8000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해 2주간 모두 5척, 700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주한 실적은 가스운반선 5척, 원유운반선 6척, PC선 8척, 컨테이너선 3척 등 모두 22척으로 금액은 1조8200억원에 이른다.

/정연우 기자 ywj964@

삼성SDS 기업형 블록체인 글로벌 사업 확대

인도 테크 마힌드라와 업무협약

삼성SDS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인도 테크 마힌드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 마힌드라그룹 계열사인 테크 마힌드라는 전 세계 900여 기업에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12만여 명의 IT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SDS는 테크 마힌드라와 공동으로 인도, 미국, 유럽에서 블록체인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넥스레저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협력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2017년부터 금융, 제조, 물류,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넥스레저

를 적용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해 글로벌 IT 리서치 기관 가트너는 삼성SDS 넥스레저를 2018년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의 대표 벤더로 선정했다.

또한 삼성SDS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적용해 거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넥스레저 가속기를 지난 2월 ‘IBM 씽크 2019’에서 공개했다.

삼성SDS 흥해진 블록체인센터장(전무)은 “삼성SDS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정받은 역량으로 고객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형 블록체인 분야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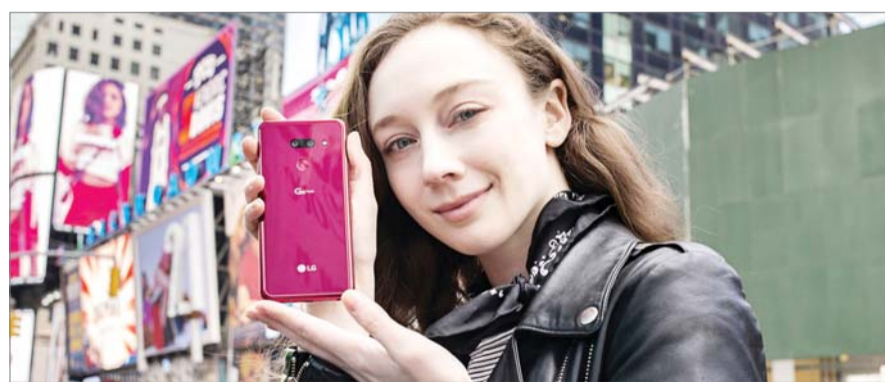
LG전자, 북미서 최신 전략폰 ‘G8 씽큐’ 출시

후면 카메라 모듈 돌출 없애
세계최초 정맥인식기능 탑재

LG전자가 12일(현지시간) 북미시장에 최신 전략 스마트폰 ‘LG G8 씽큐(T hinQ)’를 출시했다. 베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등 주요 이동통신사는 물론 전자 제품 유통채널을 통해 연락폰으로도 출시된다.

LG G8 씽큐 후면은 카메라 모듈 돌출이 전혀 없고, 지문 인식 센서도 더욱 부드럽게 처리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일체감이 돋보인다. 제품 전면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체를 스피커 진동판으로 활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피커’로 수화부 리시버조차 없었다.

이어폰이나 음원 종류에 상관없이 사운드의 입체감을 강화해주는 DTS:X 기술은 외부 스피커에도 적용돼 LG만



모델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LG G8 씽큐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의 고품격 스테레오 사운드를 이어폰뿐 아니라 스피커로도 즐길 수 있다.

LG G8 씽큐 전면에 탑재된 ‘Z 카메라’는 화질뿐 아니라 사진을 찍는 재미와 편의성까지 더한다. Z 카메라는 인물과 배경만을 구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인물과 카메라와의 거리를 밀리미터(mm) 단위까지 정교하게 계산하고,

화면 흐림 정도를 256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적용된 정맥 인식기능은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비추기만 하면 손바닥 안의 정맥을 위치, 모양, 굵기 등으로 분석해 사용자를 식별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